“다양한 문화정보에 느낌까지 담을게요”

광주문예회관 발간 소식지 ‘빛고을문예’→‘그랑께’ 변신
홍보·기획 단원 편집위 구성 페이지도 대폭 늘려

광주문예회관 소식지 ‘그랑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준호·정하나·강주희·박영선·손선미·강송운(사진 왼쪽부터)씨.

광주문예회관이 발간하는 소식지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16년 여만의 변신이다. 지금까지 ‘빛고을문예’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소식지는 올 3월호부터 ‘그랑께’라는 이름을 달았다. 또 SNS 채널을 오픈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소식지 제작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6개 예술단체 홍보·기획 단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기한 공연사업과장과 직원 모성일씨는 편집위원장과 제작·편집 주무관을 맡아 편집위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소식지 제작을 위해 체계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호로 삼은 ‘그랑께’는 ‘그러니까’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또 이탈리아로 ‘Grand(위대한) Che(감탄사 무언가)’를 나타내 ‘위대한 무언가’라는 뜻도 갖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예술가에게 보내는 감동과 찬사로 ‘Grand Che’를 외친다고 한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용단 강송운씨가 제안했다. 제호 ‘그랑께’ 캘리그래피는 서예가 전명옥씨가 썼으며 3월호 표지화도 전씨가 그렸다.

새롭게 변신한 3월호는 기존 책자보다 10여페이지 늘어난 40여페이지로 구성됐다. 4월호에는 50페이지 규모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7개 시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함께 영호남 ‘달빛동맹 교류음악회’를 준비중인 대구시립국악단 유경조 지휘자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광복 지휘자, 가수 이안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지난 겨울 동안 광주시립합창단에서 현장실습을 한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전지혁·최창조·진솔)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편집장은 시립극단 강주희씨가 맡았다. 잡지 ‘럭셔리’ 에디터, 광주 mbc 구성작가 등을 거쳐 극단 창단과 함께 홍보 단원으로 합류했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국극단 윤준호씨는 전북 문화의집과 전북소리문화관 인턴으로, 국악관현악단 손선미씨는 사)호남오페라단 기획팀장, 사) 전북예술문화관 기획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합창단 박영선씨는 대학에서 광고를 전공하고 제일기획에서 근무했다. 교향악단 정하나씨는 원주문화재단과 한솔문화재단에서, 발레단 강송운씨는 심청골짜기학교 홍보마케팅부에서 일했다.

편집위원들은 지금까지 처럼 소속 단체의 기획·홍보를 진행하고 소식지 제작에도 참여하는 터라 일이 늘었지만 새로운 기획과 시도 등을 할 수 있어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편 첫호라 아직은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 뿐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소식과 문화 공간들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 ‘그랑께’ SNS 채널(www.facebook.com/grandche2016, Twitter@grandche2016)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각종 공연 감상문과 기사에 대한 의견 등 독자들의 참여 코너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그랑께’는 매월 2000부 발행되며 문화관련 기관과 시립예술단체 정기회원들에게 배포된다. 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강주희 편집장은 “힘들기는 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들이 의욕이 넘치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열망들이 강하다”며 “젊은 위원들의 열정이 녹아 있는 좋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읽을거리도 많고 느낌이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그 많던 서점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지역사회를 키웠고 지역사회는 우리를 키웠다”(We have built a community and the community has built the store).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 부근에 자리한 작은 서점 ‘폴리틱스 & 프로즈’(Politics and Prose)의 슬로건이다. 1984년 칼라 코헨과 바바라 메드라는 여성이 창업한 이 동네서점은 30여 년 만에 종업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날 만큼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책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독특한 경영전략 덕분에 온라인 서점과 대형 문고의 공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매일 밤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와 1층 커피숍 ‘모던타임스’ 한켠에 자리한 ‘에스프레소 북 머신’(Espresso Book Machine)은 이 서점의 자랑거리다. 그중에서도 에스프레소 북 머신은 서점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콘텐츠다.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내는 것처럼 독자들이 가져온 원고나 사진들을 즉석에서 뚝딱 책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폴리틱스 & 프로즈’를 널리 알린 주인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지난 2011년 동네서점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펼친 ‘스몰 비지니스 새터데이’(Small Business Saturday) 캠페인을 위해 이 서점을 방문한 그가 두 딸과 함께 3~4권의 책을 구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소개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가까운 곳에 서점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동네서점을 찾는 지역사회의 리더들과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기자에게도 동네서점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 있다. 지난 70년대 말, 광주 계림동 헌책방 거리와 가까운 동네에 살았던 나는 주말이면 헌책방 나들이에 나섰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아는 추억의 장소가 됐지만 그 시절만 해도 헌책방거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 또래의 단발머리 여중생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침침한 형광등 아래 문학전집이나 하이틴 소설, 잡지 등을 읽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특히 다락방 같은 친근한 분위기는 헌책방만의 매력이었다. 주인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한쪽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 시절 (우리에게) 동네서점이나 헌 책방은 그런 곳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간한 ‘2016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광주는 2014년 123개였던 서점 수가 2015년에는 93개로 약 2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대 광역시 중 광주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의 지자체는 광산구(3), 남구(5), 동구(6), 북구(6), 서구(10)개가 감소해 지역에 따라서도 감소 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의 ‘그늘’이라고 하지만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건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녕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통기타 그룹 ‘프롤로그’ 음악으로 이웃 사랑

21일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투게더 광산나눔 in 콘서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과 통기타 그룹 ‘프롤로그’(사진)가 올 한해 음악으로 이웃 사랑을 전한다. 오는 21일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프롤로그와 함께하는 나눔 in 콘서트’를 통해서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문화의 힘으로 일구자는 취지로 마련된 나눔 콘서트는 매월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3월 공연의 주제는 ‘사립문을 열고’로 ‘프롤로그’ 이외에도 전통문화연구회 얼쑤(퓨전 타악), 빅맨싱어즈(성악), 주홍(샌드애니메이션), 빅사이즈(비보이)가 함께 한다.

올 한해 동안 가수 김원중, 광주로얄발레단,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가수 박강수, 미디어아티스트 이성웅·오영훈, 마술사 이홍수, 재즈밴드 장소영, 요들러 장승일, 색소폰 최거룡, 퓨전국악 희희낙락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홈페이지(www.tgnanum.com)를 통해 좌석 100개를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재량껏 모금함에 성금을 넣는 ‘감동 후불제’로 나눔 콘서트를 운영한다. 문의 062-945-66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학 콜로키움 2차 회의
17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광주정신의 근원을 찾고 지역학으로서의 광주학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한 ‘광주학 콜로키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호남의 문화로 본 광주’를 주제로 제2차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호남의 문화로 본 광주’를 주제로 나경수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발표하며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사회교육과), 이동순 조선대 교수(자유전공학), 노성태(빛고을역사교사 모임 회장) 등이 참여한다.

2016 콜로키움은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거쳐 진행되며 올 한해 논의주제는 광주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천, 불교문화, 퇴계와 고봉, 신창동 유적, 근대건축물 등이다. 문의 062-670-74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자본 창업교육생 모집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김신희)는 오는 4월20일까지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생’을 모집한다.

창업의지가 높은 청년 여성 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4월 25일~29일(오후2시~6시)까지 총 20시간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내용은 기업가 정신, 창업성공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며 교육 이후 여성유망창업직종 컨설팅지원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를 돕게 된다.

신분증사본과 사진을 지참,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1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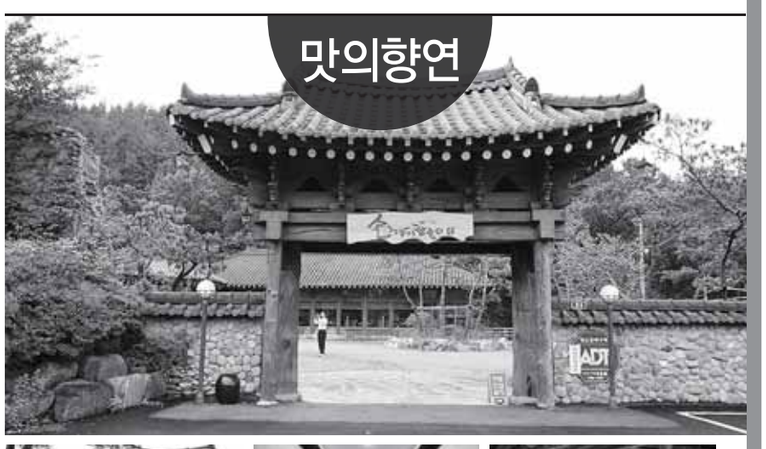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